스위스 도심지를 빛나게 하는 숨은 보석들 II.

스위스 도심지는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진 볼거리도 많지만, 로컬들에게 더 인기많은 곳들도 곳곳에 숨어있다. 스위스 그랜드 투어를 통해 차량으로 스위스의 곳곳에 숨겨진 보석들을 만나며 여정을 이어왔다면, 스위스 도심지에 도착해서도 같은 마음과 자세로 여행을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 여정의 목적은 유명한 목적지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정 자체에서 만나는 다양한 풍경과 문화,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베른(Bern).

구시가지의 종소리.

베른의 구시가지를 거닐다 보면 베른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이자, 중세의 시계가 달린 치트글로게(Zytglogge) 타워가 나온다. 매 시각 정시가 되기 직전이면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모두 시계탑 아래 모여 종소리와 함께 시계탑 안에서 튀어나온 깜찍한 기계 모형이 펼치는 쇼를 구경한다. 정시가 되기 4 분 전에 닭이 울고, 곰들이 음악에 맞춰 행진을 한다. 그리고 어릿광대가 짓궂게 시간을 알린다.

전망있는 자리.

베른의 6km 에 달하는 중세 아케이드는 베른 기차역에서 시작해 구시가지의 로맨틱하고 생기넘치는 골목을 따라 분데스플라츠(Bundesplatz) 광장을 지나 곰공원(BearPark)까지 이어진다. 이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가까이는 옥빛의 아레(Aare) 강이 베른 구시가지가 형성하고 있는 반도 모양의 지형을 따라 굽이져 흐른다. 옛 트램 차고(Old Tram Depot)에서 그 절정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데, 야외 자리에서 맥주를 한 잔 마시며 살아있는 엽서같은 풍경을 여유롭게 즐기기 좋다.

곰.

옛 트램 차고 옆에서 곰 공원(BearPark)이 시작된다. 2009 년 과거 구덩이 모양의 곰공원을 개조한 것으로, 베른 문장에 등장하는 곰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어슬렁 어슬렁 다닐 수 있는 면적이 6,000m2 로 넓어졌으니 말이다.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널찍하게 만들어진 새 공원이 사랑 받고 있다. 곰공원 산책로가 강변을 따라 이어져 있는데, 곰들의 일상 생활을 엿볼 수 있어 인기다. 입장료도 무료다.

장미 정원(Rosengarten).

223 종의 장미, 200 종의 아이리스, 28 종의 철쭉. 동화책에서나 등장할 법한 정원처럼 들리지만, 베른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곰공원 근처, 구시가지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장미 정원은 베른 중세 가옥이 빼곡히 들어선 구시가지와 아레 강의 수려한 풍경이 펼쳐지는 파노라마를 선사한다. 정원내의 로젠가르텐(Rosengarten) 레스토랑에서는 야외 테라스 자리에 앉아 풍경을 감상하며 베른 전통 요리를 새롭게 해석한 메뉴와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지중해 스타일의 메뉴를 즐길 수 있다.

베르네제 리비에라(Bernese Riviera).

아레강이 둑을 넘실대고 구시가지의 풍경이 비치는 유리 창 너머 테이블 위로 천상의 향기가 피어 오른다. 슈벨렌매텔리(Schwellenmätteli)는 마테(Matte) 지구와 마르칠리(Marzili) 지구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어부들과 뗏목꾼들이 들르던 주점에서 베른 최고의 로맨틱한 장소로 급부상한 곳이다. 유리로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만들어진 바닥이 있는 테라스에서는 아레 강 위에 둥실 떠 있는 기분에 젖어 맛있는 술 한 잔을 즐길 수 있다.

장난스런 향수.
호텔 벨 에포끄(Hotel Belle Epoque)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베른 구시가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름다운 길 중 하나에 위치해 있다. 이 보석같은 호텔은 아르 누보 양식의 장식과 셀 수 없는 오리지널 페인팅, 앤틱 제품으로 가득하면서도 박물관같은 형식성은 찾아 볼 수 없는 매력적인 곳이다. 옛 향수를 머금은 고즈넉한 분위기 안에서 수준급의 현대적인 안락함을 맛볼 수 있다.

셀러에서의 저녁.
베른에서의 저녁을 보내는 완벽한 방법은 도심 아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트레디치퍼센토(Tredicipercento) 레스토랑에서 술 한 잔을 기울이는 것이다. 구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바로, 같은 이름의 숍이 아케이드 안에 자리해 있기도 하다. 와인 바는 베른 구시가지의 지하에 만들어진 전통적인 창고를 개조해 만들어졌다. 무척 낭만적인 곳이기도 하다.

장터.
아침 일찍 베른 구시가지의 골목은 생기가 넘친다. 다양한 광장에 들어서는 장터에서는 채소, 과일, 꽃들이 지나가는 행인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수공예 장터나 벼룩 시장이 들어서기도 하는데, 다채롭고 매력적인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스위스 정치인들의 진원지.
구시가지를 거닐다 보면 생기 넘치는 분데스플라츠(Bundesplatz) 광장이 나온다. 26 개의 분수 줄기가 26 개의 스위스 칸톤을 상징하고 있다. 이를 마주보고 연방 국회 의사당인 분데스하우스(Bundeshaus)가 서 있는데, 둥근 지붕이 인상적이다. 1852 년에 건축을 시작해 1902 년에 완성된 건물이다. 스위스 연방 정부 및 연방 국회 의사당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견학할 수 있다.

스타일리쉬한 쇼핑.
6km 에 달하는 아케이드 덕분에 베른은 '유럽에서 가장 긴 지붕 덮인 쇼핑 산책로'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 때문에 비오는 날은 물론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하면서도 쾌적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특별한 숍으로는 치즈 및 향토식품을 판매하는 샤스뷔에브(Chäsbueb), 디자인 단추를 판매하는 바자르 58(Bazaar58)를 포함해 다양한 갤러리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숍이 아케이드를 따라 즐비하다.

파노라마 트레일.
구멍이 숭숭 뚫린 치즈의 고장으로 유명한 에멘탈(Emmental) 지역을 하이킹하기 가장 좋은 루트는 뤼데렌알프(Lüderenalp)에서 납프(Napf) 꼭대기 까지 올라갔다가 메틀렌알프(Mettlenalp)로 내려오는 트레일이다. 13km 의 트레일은 약 5 시간이 소요되는데, 능선을 넘나들며 전통적인 농가와 낭만적인 산장 레스토랑을 지난다. 걷는 내내 알프스와 쥐라(Jura) 산맥의 웅장한 봉우리와 에멘탈 지역의 구릉지와 야생화가 펼쳐지는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다.

한 입에 반한 사랑.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베른은 서프라이즈로 가득하다. 특히 콘하우스켈러(Kornhauskeller) 레스토랑을 처음 찾은 이라면 이 말에 동감할 것이다. 깊은 지하에 숨겨진 식당 안에 들어서기 전까지 문을 열면 얼마나 거대한 공간이 나타나는지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전혀 없다. 기둥들과 후기 바로크 양식의 아치형 천장은 성당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강렬한 벽화와 따뜻한 색채, 원목 자재, 차분한 조명은 엘레강스하면서도 감각적인 분위기를 창조하고 있다.

열정의 밤.
베른의 나이트라이프는 대부분 구시가지의 아름답고 역사깊은 건물의 사암 외벽 너머에서 벌어진다. 특히 최근 로컬들에게 인기많은 스팟은 르 시엘(Le Ciel)이다. 로컬들에게 “뒤뒤(Düdü)”라고 불리우는 전설적인 클럽 뒤 떼아트르(Club Du Théâtre)는 컬트 문화로 사랑받고 있다. 편안한 가죽 소파와 정겨운 모닥불 소리가 타닥대는 분위기에서 유리 천장 너머로 비추는 별들과 톱 디제이, 세련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아인슈타인과 함께 즐기는 브런치.
훌륭한 아침식사 테이블 중앙에는 갓구운 빵과 향기 좋은 커피가 놓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베른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시가지에 있는 크람가쎄(Kramgasse) 49 번지에 위치한 아인슈타인 하우스(Einstein House)의 카페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맛깔난 아침을 즐길 수 있다. 위층에는 이 세기의 물리학자와 그의 가족이 베른에서 지내는 동안 살았던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이 집에서 바로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연구했다. 작지만 흥미진진한 소장품이 가득한 박물관이다.

캄블리(Kambly) 체험 투어.
캄블리는 스위스에서 가장 유명한 비스킷 제조사로, 베른 근교의 트룹샤헨(Trubschachen)에 공장이 있다. 베른에서 기차로 30 분 거리에 있는 랑나우(Langnau)에서 전기 자전거를 빌려 30km 의 아름다운 투어를 시작할 수 있다. 이 코스를 따라가다 보면 에멘탈(Emmental) 지역의 초록 구릉지대와 치즈를 만드는 농가, 물레 방아를 비롯한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마지막에 캄블리 공장에 도착해 스위스 최고의 비스킷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해 보고, 맛깔난 샘플도 마음껏 맛볼 수 있다.

레일 바이크.
베른 근교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철도를 따라 레일 바이크를 체험해 볼 수도 있다. 라우펜(Laupen)과 귐멘넨(Gümmenen) 사이에 있는 철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자넨(Saanen) 계곡의 고요한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레일 바이크 한 대에는 최대 네 명이 탈 수 있는데, 라우펜에서 시작해 페달을 밟아가며 아름다운 파노라마를 즐기면서 비텐베르그(Wittenberg)까지 향하게 된다. 여기에서 맛있는 바베큐를 먹고, 활쏘기같은 액티비티를 체험할 수 있다. 같은 구간을 이용해 돌아오게 된다.

아레(Aare) 강 만끽하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가 수영장은 마르칠리(Marzili)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바로 아레 강가에 위치해 있다. 로컬들이 하는대로 따라만 하면 된다. 입장료가 무료인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뒤, 상류쪽을 향해 걸어 올라 간 뒤, 물살에 몸을 맡기고 둥실 둥실 떠내려 오다보면 다시 마르칠리에 도착하게 된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베른 관광청: www.bern.com

상트 갈렌(St. Gallen).

창고 아트.
옛 창고에 자리한 두 개의 문화 기관은 스위스 국경을 훨씬 뛰어 넘는 명성을 얻고 있다. 상트 갈렌 쿤스트 할레(Kunst Halle)는 스스로를 현대 미술의 살아있는 실험실이라 부르며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전시회 프로그램을 통해 스위스 및 국제 아트 무대의 흥미진진하면서도 새로운 트렌드를 조명한다.

공공예술.
스위스의 가장 커다란 야외 거실은 슈타트라운지(Stadtlounge)로, 블라이헬리(Bleicheli) 지구를 놀이, 휴식, 비즈니스를 위한 주간 및 야간용 공간으로 변모시킨 프로젝트다. 대학 캠퍼스에서도 아르프(Arp), 리히터(Richter), 쟈꼬메띠(Giacometti), 미로(Miró) 등의 작업을 만나볼 수 있다. 상트 갈렌 도시 전반에 걸쳐 뛰어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스페인을 대표하는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Santiago Calatrava)의 건물부터 장식이 화려한 공공 분수대까지 그 디자인에 감탄하게 된다.

역사 속 산책.
아일랜드 수도사에 의해 612 년에 건립된 상트 갈렌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도원 도서관이 있는데, "영혼을 위한 약국"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얀 금(white gold)"은 어떤 뜻일까? 상트 갈렌에 대해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가이드 시티 투어에 참여하는 것이다. 역사는 물론 도시에 얽힌 수 많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이 곳에 살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구시가지에서 벌이는 파티.
상트 갈렌은 매력적인 구시가지 레스토랑으로 유명하다. 로컬들은 "1 층 주점"이라는 뜻의 "에르스트슈톡 바이츨리(Erststock-Beizli)라고 부른다. 역사적인 건물들의 위층에 자리해 있는데, 사투리인 섀플리(Schäfli), 노이배들리(Neubädli), 푀쉬틀리(Pöschtli)가 바의 이름에 붙는다.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 중 하나인 비르트샤프트 취르 알텐 포스트(Wirtschaft zur alten Post)에서는 지역 향토 요리와 이국적인 미식 요리를 세련되게 즐길 수 있다.

직물 박물관(Textile Museum).
상트 갈렌은 품질이 우수한 직물로 오랫동안 유명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작품들을 직물 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800 년에 이르는 직물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자수 예술부터 최신 디자인 트렌드까지 광범위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전시에서는 역사적인 직물, 오리지널 손자수 기계, 일본 패턴 샘플, 패션 포토그래프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

옛 기관차 차고에서 만나는 문화와 미식.
로칼(Lokal)에서는 로컬 퀴진을 선보이는데, 심플한 메뉴부터 섬세한 메뉴까지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로칼은 아침 식전주 한 잔을 즐기기에도 좋다. 상트 갈렌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 중 하나로, 옛 기관차 차고를 개조한 공간이다. 최근 기관차를 회전시키기 위해 약간 높게 설계된 턴테이블 회전 구조가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콘서트와 상트 갈렌 극장에서 선보이는 드라마, 상트 갈렌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전시, 키녹(Kinok) 레퍼토리 시네마, 로칼 레스토랑이 이 곳에서 함께 모여 문화와 미식이 어우러진 멋진 시간을 선사한다.

호텔 그 이상.
구시가지 가장자리에는 역사적인 밀리타르칸티네(Militärkantine) 호텔이 있는데, 최근에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새단장하였다. 리겔하우스(Riegelhaus)는 1900 년에 군사 구역에 세워진 호텔로, 투숙객들은 체크인을 할 때 아이패드를 받아들게 되는데, 이를 이용해 호텔과 도시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에 설치된 사운드 시스템으로 음악을 들을 수도 있다. 레스토랑, 바, 문화 프로그램, 밤나무가 늘어선 정원 등 호텔 그 이상의 공간을 선보인다.

놀이.
운수 좋은 밤이려나? 상트 갈렌의 그랜드 카지노(Grand Casino)에서 블랙잭이나 룰렛을 즐길 수 있다. 혹은 바나 스타일리쉬한 라운지에 편하게 앉아 화려한 카지노의 분위기만 즐겨도 좋다.

천상의 달콤함.
상트 갈렌에서 놓칠 수도 없고, 놓쳐서도 안되는 것이 있다. 대성당을 마주보고 있는 초컬릿 숍, 쇼콜라테리(Chocolaterie)로, “신부님의 술”부터 생크림이 올려진 심플한 핫초컬릿까지 다양한 초컬릿을 맛볼 수 있다. 상트 갈렌의 전통 초컬릿인 미뇌를리(Minörli)와 문츨리(Munzli)는 물론 우수품질 라벨이 붙은 로컬 재료를 이용해 만든 다양한 맛에 반하게 될지도 모른다. 알프스 치즈부터 치거(Ziger) 소프트 치즈까지 다양한 향토 식품을 상트 갈렌 곳곳의 상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구시가지 산책.
구시가지에는 111 개의 아름답게 보존된 퇴창을 볼 수 있는데, 인상적인 장식일 뿐만 아니라, 상상력이 풍부한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다. 낙타나 펠리칸처럼 말이다. 쉬크한 숍과 부띠끄의 매력적인 인테리어가 되어주기도 한다. 그 예로 “패셔너블 베버(fashionable Weber)”라는 상점이 있는데, 상트 갈렌 레이블인 아크리스(Akris)의 흥미로운 디자인을 엿볼 수 있다. 상트 갈렌 샴페인을 맛 보고자 한다면 마르텔(Martel)을 들러보자. 수도원 구역에 있는 방문자 센터에서는 상트 갈렌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자수를 감상할 수도 있다. 로그빌러(Roggwiller) 제과점에서는 달콤한 기념품을 잔뜩 챙길 수 있다.

기막힌 소시지.
상트 갈렌 구시가지의 한 복판에 있는 슈미드가쎄(Schmiedgasse)에서는 이 도시의 영혼을 꿰뚫어볼 수 있는 맛을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인 부처스 겜페를리(butcher’s Gemperli)의 그릴 스탠드에 서서 올마브라트부어스트 미트 뷔를리(Olmabratwurst mit Bürli)를 주문해 보자. 롤빵을 곁들인 클래식한 송아지 소시지로, 한 입을 베어물면 왜 로컬들이 이 전설적인 전통 요리에 그렇게 자긍심을 느끼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단, 머스타드 소스는 생략해도 좋겠다.

상큼한 파노라마.
상트 갈렌 파노라마 투어는 사랑스러운 9km 의 산책으로, 도시를 내려다 보는 고지대 능선을 따라가는 루트다. 난이도가 낮은 이 트레일은 하겐(Haggen) 역에서 시작해 초록 들판을 지나고 수을 지나 프로이덴베르그(Freudenberg)까지 이어진다. 트레일의 끝 즈음에 다다르면 세 개의 호수라는 뜻의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드라이 바이에렌(Drei Weieren)의 기막힌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아르 누보 양식의 수영장에서 상쾌한 수영을 즐기며 구시가지의 로맨틱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상트 갈렌에서 가장 사랑받는 수영.
1610 년 상트 갈렌 도시 위쪽에 있는 드라이린덴(Dreilinden)에 세 개의 연못이 만들어졌다. 이 인공 연못들은 염색 작업과 슈타이나흐(Steinach) 계곡의 물레 방아, 소방 작업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오늘날 호수에는 아르 누보 양식으로 만들어진 수영장이 있는데,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수영장으로 손꼽힌다. 뮐레그반(Mühleggbahn) 퓨니큘러로 쉽게 올라갈 수 있다.

블루의 맛.
상트 갈렌의 역사적인 공간, 쉴뢰슬리(Schlössli)에서는 시정부가 인증한 최고의 식재료를 이용해 요리한 세련된 메뉴를 맛볼 수 있다. 고미요(GaultMillau) 14 점을 받은 이 레스토랑은 신선한 로컬 식재를 사용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특별한 메뉴가 눈길을 끄는데, “블루 포테이토”와 “블루 수프” 등이 인기다.

열정의 무대.
상트 갈렌 떼아트르(St. Gallen Theatre)는 오페라와 뮤지컬 프로덕션으로 높은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모세와 10 계명”과 같은 뮤지컬 프리미어를 올려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4 년에는 “아더왕의 검”을 무대에 올린 바 있다. 프로그램에는 정기적으로 무대에 올리는 댄스 프로덕션을 비롯해 카르멘과 같은 인기 오페라도 포함된다.

물, 물, 어디를 봐도 물.
로르샤흐(Rorschach)의 사랑스런 수영장은 1924 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스위스쪽 콘스탄스(Constance) 호숫가에 남아 있는 마지막 호수 수영장이다. 물 위에 세워진 기둥 위에 만들어진 지붕 덮인 수영장 건물은 탁 트인 목조 데크가 인상적이다. 낮에는 선텐을 즐길 수 있고, 저녁이면 각종 콘서트와 문화 이벤트가 펼쳐진다. 로컬들에게 이 곳은 무척 인기 많은 약속 장소로, 여유롭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자연 속 글라이딩.
수로화된 라인강에서 알터 라인(Alter Rhein)이라 불리는 옛 강줄기까지 뻗어나 있는 자연 보호 지역, 콘스탄스 호숫가까지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진다. 유람선을 타고 이 천국같은 자연 속을 유유히 둘러볼 수 있다. 백조와 왜가리를 포함한 다른 야생 동물과 식물의 서식지가 되어주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로르샤흐에서 유람선은 수려한 호숫가를 따라 동쪽으로 여정을 계속하며 고요한 알터 라인을 지나 아름다운 라인넥(Rheinneck) 마을까지 파노라마 가득한 풍경을 선사한다.

상트 갈렌 관광청: www.st.gallen-bodensee.ch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